

제25회 광양매화축제 화려한 개막...열흘간 일정 돌입

캘리그래피·매실 스파클링와인 세리머니 등 분위기 고조 시민·관광객 대규모 발걸음...공연·전시·체험·먹거리 풍성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제25회 광양매화축제가 지난 13일 화려한 개막식을 열고 열흘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광양시는 이날 광양매화문화관과 주무대에서 제25회 광양매화축제 개막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광양시립국악단의 식전 공연으로 막을 올려 광양매화축제 추진위원장의 개회 선언, 환영사와 축사, 구남컬레티브(구혜영·김영남)의 친환경 공연, 매화 캘리그래피 퍼포먼스, 매실 스파클링와인 세리머니 등이 진행되며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특히 구남컬레티브가 선보인 친환경 공연과 캘리그래피 퍼포먼스는 개막식의 상징성을 더했다. 퍼포먼스에서는 '피어라 광양의 봄'이라는 문구를 주제로 축제의 개막과 봄의 정취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 광양 매실로 만든 스파클링 와인 세리머니는 개막 순간을 알리는 대표 장면으로 연출돼 현장의 이목을 끌었다. 축제와 연계해 진행된 도슨트 투어도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임재권 화백을 비롯해 이이남, 이경호, 장태산, 방우송, 유영동, 신호윤, 조병철 작가와 구남컬레티브 등이 참여한 광양매화축제가 복합문화축제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 광양시 관계자는 "제25회 광양매화축제가 많은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 속에 뜻깊게 막을 올렸다"며 "매화가 어우러진 봄 풍경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즐기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25회 광양매화축제는 공연·전시·체험·먹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방문객들에게 광양의 문화적 매력과 봄의 정취를 선사할 예정이다. 광양=김귀진 기자 ikkim@gwangnam.co.kr



광양시는 지난 13일 광양매화문화관과 주무대에서 제25회 광양매화축제 개막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국제청소년연합은 지난 2월 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약 한 달간 전국 12개 도시와 태국 방콕에서 '굿뉴스 페스티벌'을 성대하게 열었다.

해외봉사단 귀국보고회 '굿뉴스 페스티벌' 성료

국제청소년연합, 2월 전국 12개 도시·태국 방콕서 진행 청년들 해외봉사 경험 널리 공유...시민들 2만여 명 참여

대학생 해외봉사 프로그램 '굿뉴스'(Good News Corps)의 활동을 소개하는 '굿뉴스 페스티벌'이 많은 시민과 청년들의 관심 속에 마무리됐다. 15일 국제청소년연합(YF)에 따르면 지난 2월 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약 한 달간 전국 12개 도시와 태국 방콕에서 '굿뉴스 페스티벌'을 성대하게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누적 관객 2만여 명이 찾는 등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서는 굿뉴스 해외봉사단으로 활동했던 대학생들의 해외 봉사활동 사례

와 문화공연, 전시 프로그램 등이 진행돼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굿뉴스 해외봉사단으로 활동했던 대학생들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세계 각국에서 진행한 교육 봉사, 문화교류, 지역사회 개발 활동 등 봉사 경험과 현지 학생들과의 교류, 문화 체험 등을 소개했다. 이들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장한 경험을 관객들과 공유했다. 이들의 이야기는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올해로 25번째 개최 중인 '굿뉴스 페스티벌'은 청년들과 시민들이 어우러지는 세계 문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국제청소년연합은 이번 페스티벌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7년 2월 파견될 26기 굿뉴스 해외봉사단원 모집을 시작했다. 굿뉴스 해외봉사단은 "내 젊음을 팔아 그들의 마음을 사고 싶다"는 슬로건 아래 대학생들이 세계 각국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키우는 봉사 프로그램이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102개국에 1만 517명의 대학생이 해외봉사단으로 파견됐으며, 현지 청소년 교육, 문화교류, 보건위생 캠페인, 지역사회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정재경 기자 view2018@

인사

전남도 ◇국장급(3급) 승진 △문화성국장 이길용
◇국장급 전보 △전남광주행정통합실 무준비단장 강효석
◇준국장급(4급) 전보 △도민행복소통실장 강경문 △이순사건지원단장 배성진
◇과장급 승진 △회계과장 정무혁 △고

향사랑과장 박주환 △국제협력지원관 민순희
◇과장급 전보 △통합지원담당관 김미선
◇팀장급(5급) 승진 △도민행복소통실 황준철 △인구정책과 김신희 △회계정책 산업과 임시우 △미래에너지산업과 윤보은 △토지관리과 이용민

◇팀장급 전보 △의대실추진단 서중국 △지역계획과 탁해은 △통합지원담당관실 인현택 △통합지원담당관실 정인원 △통합지원담당관실 방영석 △기후대기과 박일규 △자치경찰위원회 김성재 △광안만권역제자유구역청 이현술 △기획에 산처 배혁

게시판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월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이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3세 미만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뜸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부음 △김영조씨 별세. 김경태(남도일보 중서 부권취재본부장)·김정태(레프트라트 치과 원장)·김경애(참사랑약국 대표) 부친상. 오명진(영광공업고등학교 교장), 김정희씨(하나로음악약국 대표) 시부상. 신현일(새기건설 대표) 정인상=15일, 광주 서구 VIP 장례타운 VVIP 301호, 발인 17일 오전 7시. 062-521-4444.

르노코리아 정비사업자 호남본부, 이웃사랑 실천

550만원 상당 바람막이 등 후원

르노코리아 전국정비사업자 호남본부가 최근 광주 동구청에 550만원 상당의 돌봄이웃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임택 동구청장, 최홍석 전국정비사업자 호남본부장, 김보영 르노코리아 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사업총괄본부장 등이 참석해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 전달된 후원 물품은 바람막이 점퍼 24벌과 라면 100박스로,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돌봄이웃 124가구에 지원된다. 특히 동구가 추진한 '기본복지가이드라인 돌봄이웃 전수유구조사'를 바탕으로, 돌봄이웃의 실제 생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바람막이 점퍼는 불철 꽃샘추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정 아동 24명에게 전달됐으며, 라면은 돌봄이웃 100가구에



르노코리아 전국 정비사업자 호남본부가 최근 광주 동구청에 돌봄 이웃을 위해 55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사진제공=광주 동구

지원돼 간편한 식사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나눔은 김보영 르노코리아 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사업총괄본부장의 제안에서만 10여년 간 1억원 상당의 물품을 꾸준히 후원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임택 청장은 "인문도시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신 르노코리아 전국 정비사업자 호남본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시설에 안전농산물 무상 제공

10곳에 1년간 2750상자 전달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 사회복지시설 10개소에 올해 1년간 안전 농산물을 무상 제공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5개 자치구 추천을 받아 선정한 북구 솔잎쉼터(대표 부덕민) 등 10곳이다. 이 중 4곳은 지역 내 복지시설에 골고루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신규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서부·각화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 전·후 농산물 2800건에 대해 주·야간 상시 검사를 실시, 잔류농약 허용 기준에 적합한 안전 농산물 2750 상자(4000만원 상당)를 사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 사회복지시설 10개소에 올해 1년간 안전 농산물을 무상 제공한다.

회복지시설에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11년 서부농수산물검사소가 설치된 이래 매년 복지

시설에 안전 농산물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2376상자를 제공해 복지시설 운영을 도왔다. 양동민 기자 yang00@

은세 (음력 1월 28일)

48년생 자녀 일에 동조한다면 될 일도 안된다
60년생 보류했던 거래도 원만하게 해결된다
72년생 가까운 사이라도 말 조심
84년생 뒷사람과 의견을 따르는게 좋다
96년생 기본 체계를 중시하라
51년생 뒷뒤에 귀인의 방문이 있을 것이다
63년생 헛소문으로 사람들과 불화가 생긴다
75년생 계약이나 매매는 한번더 생각하라
87년생 서로 맞지 않아 애를 먹는 모양새
99년생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온다
54년생 음해하는 자들이 많다
66년생 평소 바라던 거래가 이뤄지겠다
78년생 구설수나 문서 도난 당할 우려가 있다
90년생 친구의 도움으로 이익을 보겠다
57년생 집안에 경사가 있다
69년생 배우자와 상의하면 해결된다
81년생 주변에 근심 또는 가정 내 우환이 있다
93년생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49년생 제3자로 시비 발생있으니 충고를 피하라
61년생 큰 도움을 받지만 금전 거래는 하지마라
73년생 수산업쪽에 손을 대도 성공을 거두겠다
85년생 반대 인장과 함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97년생 도와 줄 귀인이 있는 당신은 행운 남
52년생 시작만 있고 끝이 없으니 끈기를 갈다
64년생 배우자 외의 이성은 반드시 후회한다
76년생 직원들의 단합이 필요할 시기
88년생 이성과의 여행이 성사된다
55년생 모난 그릇에 둥근 뚜껑 덮으려는 날
70년생 작은 일도 만족해야 정신건강에 좋다
79년생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면 해결될 것
91년생 너무 좋은 남자가 귀하게 맹목과 있다
58년생 모든 문서 거래는 지금 하라
70년생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겠다
82년생 과감히 버려라
94년생 차에 이성친구 태우지 마라



강은주 교수의 시주·풍수·작명

50년생 아랫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62년생 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74년생 일반적인 방법이 가장 무난하다
86년생 기다리면 협력자 만나 좋은 결과 있다
98년생 공들인 일엔 행운이 들어 올 것이다
53년생 과욕을 부리지 여자야 원수 진다
65년생 불가능해 보이는 일 한 번쯤 해도 좋다
77년생 단기적인 일에 투자해도 좋을 것이다
89년생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주겠다
56년생 모든 모임에는 꼭 참석하라
68년생 헛 정보로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라
80년생 이익은 없지만 한 걸음씩 나가고 있다
92년생 지인 덕으로 거래가 쉽게 이뤄진다
59년생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자
71년생 주관을 가지고 행동하라
83년생 부담 없이 처리해도 무방하다
95년생 지탄된 생각은 금물